

코로나 19시대 뉴 노멀의 윤리적 가치로서 ‘공동의 선’과 한국교회*

성석환 (장로회신학대학교, 조교수)

I. 들어가는 말

II. ‘코로나19’와 한국사회의 대처: ‘공동의 선’의 요청

III. ‘코로나19’와 한국교회의 대처: ‘공동의 선’으로부터의 이격(離隔)

IV. 지구화의 다원성과 ‘공동의 선’: ‘코로나19’ 이후 종교의 역할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0.47.05>

* 이 논문은 2020년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ABSTRACT •

A theological reflection on the public role of Korean Churches to pursue
‘the common good’ as an ethical value of ‘the new normal’ after ‘the
Covid-19’

Prof., Sung, Suk-Whan(Presbyteria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The new normal’ situation, caused by the pandemic of ‘the Covid-19’, poses many challenges not only to the way of life but also to political, economic and socio-cultural areas. South Korea has received positive reviews for its exemplary defense to ‘the Covid-19’ but now Korean society has a task of public consensus on ‘the new normal’ based on the value of ‘the Common Good.’ This article argues that for Korean Churches it is more important to take part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new normal’ in society after ‘covid-19.’ Public theology would be a foundation in public sphere for discussing the ‘the new normal’ not only in a local but also on a global level. Thus, this study argues that the public role of religion on a global level is being discussed by non-theologians such as Jürgen Habermas and Hannah Arendt, and for Churches it means a request to contribute to drive ‘the new normal’ to pursue ‘the Common Good.’ And introducing the public theology of Miroslav Volf and Partick Riordan, the study argues all human being’s flourishing should be the key of ‘the new normal’ and Korean Churches should participate in public discussion and produce a value of ‘the Common Good’ to support all people’s flourishing in Korean civil society after ‘the Covid-19’.

Key words: The Covid-19, The Common Good, The New Normal, Korean Church, Public Theology

I.

‘코로나19 전염병(이하 코로나19)’가 한국을 비롯한 전 지구에 확산하고 있다. 전문가들과 학자들은 ‘코로나19’ 이후의 세계가 이전의 세계와 전혀 다를 것이고 예측하며, ‘뉴 노멀(the new normal)’¹⁾를 공론화하고 있다.²⁾ 이 사태를 자연의 ‘징벌’이라 규정하며 미래세대를 위해 무분별한 개발을 멈추고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³⁾ ‘신자유주의 경제’가 초래한 사회적 ‘재앙’이라고 비판하며 앞으로 더 정의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즉 ‘코로나19’의 피해가 빈곤층에 집중되는 것이 ‘신자유주의 경제’의 왜곡된 구조 때문이라며 ‘인권’과 ‘평등’을 보장하는 사회체계를 근원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⁴⁾ 한편, 우리나라를 비롯해 여러 나라가 국민 모두에

-
- 1) ‘뉴 노멀’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새롭게 요청된 경제체제를 가르켜 로저 맥나마시(Roger McNamee)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질서를 지칭하는 것으로 전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비대면 소통’ 등의 개인 간 생활방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지역적, 지구적 차원의 새로운 질서를 통해 이전의 세계와는 다른 ‘정상(定常)’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 2) 예컨대 빌 게이츠(Bill Gates)는, 이미 5년 전 TED 강연을 통해, 앞으로 인류에게 닥칠 큰 재난은 핵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되리라 예측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지구적 연대와 방어망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당시에는 이 ‘테크노-예언자’의 호소는 전혀 효과가 없었지만, 이제 ‘코로나19’의 확산이 이 필요성을 명확히 증명한 셈이 되었다. Bill Gates, (2015.4.3.) “The next outbreak? We’re not ready” (TED 강연) https://www.youtube.com/watch?v=6Af6b_wyiwI (2020.4.22.)
 - 3)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 각국이 ‘사회적 거리 두기’에 나서면서 사람의 소비와 교통량이 현저히 줄어들자 공기오염도가 낮아지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되었으며, 심지어 인간의 걸을 떠나 있던 보호종과 여러 동물이 가까이 다가오는 등 짧은 기간의 휴식에도 자연의 복원이 급격히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되었다.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중국의 대기 중 이산화질소 농도는 2월에 30%가 감소했다... 3월 이탈리아에선 40.5% 하락했다. 한국에서도 3월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난해보다 46% 줄었다.” 『한겨레신문』 2020년 4월 13일자, “인간을 격리했더니... 가려졌던 지구 모습이 복원됐다.” <http://www.hani.co.kr/arti/science/future/936780.html> (2020.4.25.)

계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이미 지구적 주제로 논의되고 있는 ‘기본 임금(basic income)’ 논의와 함께 새로운 경제 질서의 핵심적 의제가 될 전망이다.⁵⁾

언론을 통해 유발 하라리(Yuval Noah Harari)는 “바이러스 대유행과 이후 벌어질 경제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적 고립이나 폐쇄가 아니라 지구적 연대와 협력을 구축해야”⁶⁾ 한다고 주장했고, 헨리 키신저(Henry A. Kissinger) 역시 “코로나 대유행은 새로운 세계 질서와 함께 이후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전 지구적 연대와 협력”을 유지하고 “국민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인식한 근대적 이상”을 유지하며 세계경제의 회복을 지지하는 정책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⁷⁾ 두 사람 모두 지금까지 인간의 삶을 지속시켜온 사회적 관계의 변화

-
- 4) 장호중은 극빈층과 사회 최하층에 놓여 있는 청년들, 비정규직 종사자들, 병원 노동자들이 더 큰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전염되는 감염병은 그 차이가 더욱 확대해, 평소에 은폐돼 온 계급 격차를 날카롭게 드러내고는 한다.” 장호중,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문제는 계급이다,” 장호중 편, 『코로나19-자본주의의 모순이 낳은 재난』 (서울: 책갈피, 2020), 163.
- 5) 보수적인 경제단체들과 학자들도 ‘코로나19’와 특히 ‘4차 산업혁명’의 물고 올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더 공평한 경제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예컨대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y Forum)’은 2017년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4차 산업혁명’의 대안으로서 공평한 경제의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최근 ‘코로나19’의 대응책으로 ‘기본임금’을 제안하고 있다. World Economic Forum, (2020.4.17.) “Universal basic income is the answer to the inequalities exposed by COVID-19,” <https://www.weforum.org/agenda/2020/04/covid-19-universal-basic-income-social-inequality/> (2020.4.22.)
- 6) 그는 〈파이널셀 타임〉에 기고한 글에서 국가적 협력을 위해 정보의 공유, 의료진의 공유, 국경의 제한적 개방 등을 제안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제적 고립정책이나 국가의 감시정책은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Yuval Harari, *Financial Times* (2020.3.20.), “the World after Corona virus,” <https://www.ft.com/content/19d90308-6858-11ea-a3c9-1fe6fedcca75> (2020.4.23.)
- 7) Henry A. Kissinger, *WSJ* (2020.4.3.), “Corona Pandemic will Forever after World Order,” <https://www.wsj.com/articles/the-coronavirus-pandemic-will-forever-alter-the-world-order-11585953005> (2020.4.23.)

와 국제관계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며, 인류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새 질서(new order)’ 또는 ‘뉴 노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뉴 노멀’은 특정 계급의 당파적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모든 이들에게 좋아야 한다. 즉 ‘공동의 선(the Common Good)⁸⁾을 실현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종교가 사회적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코로나19’ 이후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지지하고, ‘뉴 노멀’의 정립을 다루는 공론장이 ‘공동의 선’을 추구하도록 해야 할 공적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는 공공신학자들이나 후기세속사회⁹⁾의 종교담론을 주장하는 이들의 주장이 주목받고 있

-
- 8) ‘공동의 선’의 개념은 이미 일반 학계에서는 공론화가 되어 있다. ‘공동의 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사상에서 유래했으며, 모든 이들이 협력하여 좋은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신플라톤주의를 신학적으로 수용한 어거스틴과는 달리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수용하여, 계시와 이성을 신앙의 원리로 통합하였고, 최근 사회변혁과 혁신을 위한 새로운 대안의 가치로 부상하고 있다. 신학적으로 ‘공동의 선’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법과 이성을 통해 모든 이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반 은총’의 관점에서 추구된다. 근대에 와서 ‘공리주의’에서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지만, ‘공리주의’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추구를 통해 오히려 개인주의에 기반한 사회의 유지를 목표로했다면, 최근에 ‘공동체주의’는 개인주의적 이해를 공동의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의 선’을 추구하고자 한다. 도덕과 윤리의 토대가 ‘공동의 선’을 지향함으로써 모든 이들에게 번영과 안정을 보장하도록 사회적 질서를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논의를 지구적 차원의 새로운 논의로 확장해 보고자 추후 다시 논의하겠다. ‘공동의 선’에 대한 최근의 신학적 수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우선 에큐메니컬 관점에서 70년대부터 영국 성공회, 가톨릭, 개신교, 유대교, 이슬람 등 종교단체와 사회단체 및 정부가 협력하여 진행된 *Together 4 the common good* (T4CC)의 주요 관계자인 러셀이 말하는 “모두의 대화(conversation)와 변혁(transformation)을 지향하는 공동의 선”이다. Hilary Russell, *A Faithful Presence* (London: SCM, 2015), 8-23. 다음으로 미국 복음주의 진영의 정치적 참여를 지향하는 공동의 선에 대한 신학적 고려이다. 특히 여기서는 구체적인 정치적 참여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Charles E. Gutenson, *Christians and the Common Good* (Grand Rapids: Brazos, 2011), 145-71. 또한 본 연구의 결론 부분에서 다룬 인간의 번영과 관련하여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새로운 사회적 상상력으로서의 공동의 선에 대한 연구이다: C. Christopher Smith, *Reading for the Common Good* (Downers Grove: IVP, 2016), 121-33.
- 9) ‘후기세속사회(postsecular society)’는 세속화가 예측한 종교의 쇠퇴가 오히려 종교의 정치적 개입의 활성화로 현실화되자 정치학, 사회학에서 종교의 공공성 요청과 함께 세속화 논리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담아 전개하는 일련의 담론이론이다. 최근 공공신학자들이 이를 수용하여 종교의 역할에 대한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

다. 그러나 초기 ‘신천지교회’가 전염병 확산의 진원지로 밝혀졌고, 또 4월 중순 이후에 일부 개신교회들이 소규모 확산의 진원지가 되면서 정통 교단과 이단을 구분하지 않는 교회 외부에서 종교의 부정적 행태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자칫 ‘코로나19’ 이후 ‘공동의 선’을 준비하는 공론장에서 한국교회가 배제되거나 ‘코로나19’ 이후의 ‘뉴 노멀’ 형성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공동의 선’을 통해 모두가 번영하고 공존하는 ‘뉴 노멀’ 형성에 교회의 공적 참여를 주장한다. 우선, ‘코로나19’에 대처한 한국사회의 다양한 양상을 ‘공동의 선’의 공론화 과정으로 살펴려 하는데, 최근 시민사회에서 발생한 ‘공정’의 담론형성에 한국교회가 참여하지 못한 요인들을 분석하여, ‘코로나19’ 이후 ‘뉴 노멀’의 형성과정에서 참여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는 ‘공동의 선’에 대한 지구적 차원의 논의를 신학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국교회의 새로운 공적 역할에 대입할 것이다. 의학적, 병리학적 논문들 외에 ‘코로나19’의 영향을 다루는 신학적 분석들이 아직 충분히 생산되지 못한 상황이라, 우선 언론 및 ‘온-라인’ 공론장에서 생산된 의견들과 자료들을 참고하고, ‘공동의 선’에 대한 신학적 성찰들을 수용하여, 추후 ‘코로나19’ 이후 신학을 정립하기 위한 기초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 19 : ‘ ’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지구적 여론이 우세하다. 세계 언론이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질서’의 형성에 한국이 기여할 부분이 크다고 전망했는데,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거주지 이탈을 막는 ‘이동금지’ 명령이나 ‘직장 폐쇄’나 ‘지역 폐쇄’ 정책을 실행하지 않았다. 또 일부 국가에서 나타난 ‘사재기’ 현상이나 ‘의료붕괴’

현상도 없었다.¹⁰⁾ 하지만 한국사회가 ‘코로나19’ 이후의 ‘뉴 노멀’의 기준이나 가치에 대한 논의는 본격적이지 못하고, 우선 긴급한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대처 상황을 근거로, ‘공동의 선’의 가치가 한국 사회에 요청되는 국면을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¹¹⁾ 우선 정치적 측면이다. ‘코로나19’의 대처 과정에서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초기의 혼란스러웠던 ‘마스크 대란’은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동의 선’에 대한 사회적 경험을 제공했다.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에 있어서, 4월에 실시한 1차 때보다 정부가 2차 지급을 결정한 6월의 여론은,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크게 높아졌다.¹²⁾ 이 문제를 다룬 공론장의 의제가 ‘민주

10) 서구 사회는 ‘코로나19’ 사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국이 개방과 소통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적절히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놀라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조차 문재인 대통령에게 의료장비를 긴급한 지원을 요청했으며, 한국의 확진자 수가 급증할 당시 한국인의 입국을 차단했던 많은 나라들이 한국 정부의 도움을 요청했다. 이로 인해 서구에 대한 전통적인 ‘사대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즉 서구사회의 변질된 개인주의와는 달리 공동체적인 민주적 사회의 전형으로 평가받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여전히 과거 오리엔탈리즘에 경도되어 한국의 모범적 방역정책을 두고 ‘개인 사생활 침해’라거나 ‘독재를 꺾어 순종적인 국민성’을 지적하는 일부 유럽의 언론들도 없지 않았다. 참고. 머니투데이, (2020.4.21.), “네덜란드 언론 “한국, 독재경험해 방역성공... ‘황당 주장’ 왜?,”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42013205227573&fbclid=IwAR3Db_thMOgnwzzVJ1xV6u6nYmSSKgV9uLL8cW6p0iyvmVInLnImXFpm3zg (2020.4.25.)

11) 세 차원의 논의는 최근 ‘공동의 선’에 대한 확장된 논의를 반영하는 것이며, 이는 본 논문 결론에서 한국교회의 실천적 과제에 적용한다. 최근의 확장된 논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Patrick Riordan, *Global Ethics and Global Common Goods* (London: Bloomsbury, 2015), 61-81; Melanie Johnson-Debaufre, Catherine Keller & Elias Ortega-Aponte eds., *Common Goods: Economy, Ecology, and Political Theology* (New York: Fordham University, 2015), 1-21.

12) <오마이뉴스>가 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1차 지원금에 대한 반응을 조사한 통계(4월 7일 7,033명)에 따르면,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안에 대한 ‘찬성’은 58%, ‘반대’는 36.6%였다. 이 조사에서는 서울지역, 20대, 여성,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거나 오히려 반대가 더 많았다(20대의 경우). 이것은 향후 한국사회의

적 공정성'이었다는 점에서 이 역시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의 '뉴 노멀'에 대한 정치적 토론이 '공동의 선'을 추구할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한다. 이와 함께 한국의 정치적 공론장이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안전과 공존을 보장하는 일상생활과 연관된 미시적 차원의 관리가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그 대응능력에 따라 정치적 지형이 달라질 것이고, 이러한 환경변화에 잘 적응하는 편이 차세대 시민사회의 주도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코로나19'는 지구적 차원에서 강력히 제기될 새로운 경제체제의 요청이 한국 사회에서도 공론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비대면 산업과 직무형태의 확장으로 향후 공장과 사무실의 필요성이 줄어들 것이고, '온-라인' 환경이 급속도로 발전할 것이고, 산업구조 역시 '오프-라인' 매장 중심에서 '온-라인' 유통 중심으로 시장질서가 새롭게 재편될 것이다.¹³⁾ 따라서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변화할 수밖에 없다. '코로

변동을 누가 주도할 것이냐를 두고 각 특성군이 서로 다른 전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그러나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한 후,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결과(6.8-11 1,000명)는 4월의 조사와는 사뭇 차이가 난다. "모든 사람 지급"이 54%에서 80%로 증가했고, 심지어 "여러 번 지급"에 대해서도 58%에서 70%로 증가했다. 리얼미터, (2020.4.8.),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확대주장 평가," <http://www.realmeter.net/%EA%B8%B4%EA%B8%89%EC%9E%AC%EB%82%9C%EC%A7%80%EC%9B%90%EA%B8%88-%EC%A0%84-%EA%B5%AD%EB%AF%BC-%ED%99%95%EB%8C%80-%EC%B0%AC%EC%84%B1-58-2-vs-%EB%B0%98%EB%8C%80-36-6/> (2020.4.25.)

『한국일보』 2020년 6월27일자, "재난지원금 받고 보니 '모든 사람에게 지급' 찬성 80% 급증,"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6231707000009?did=NA> (2020.7.2.)

- 13) <닐슨코리아>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마트'나 '백화점'과 같은 '오프 라인' 매장에 비해 소위 '이커머스(e-commerce)'의 시장점유율이 올 들어 6.5% 높아졌고, 특히 새벽 배송으로 신속한 배달을 앞세운 <쿠팡>의 상승세가 전년도 18.1%에서 24.6%로 급격히 높아졌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런 추세에 따라, 대형 유통기업이나 매장이 속속 '온 라인' 매장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여파로 외출과 외식을 자제하는 소비자들의 손쉬운 소비를 촉진하는 '한국식' 배달문화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이미 '4차 산업혁명'의 기술발전으로 인한 인간의 노동권 보장에 대해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코로나19' 이후의 노동 가치에 대한 평가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양산되는 쓰레기 문제와 '이커머스(e-commerce)'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낮은 처우는 앞으로 산업구조 재편에 있어서 풀어야 할 '공공성'의 의제이기도 하다.¹⁴⁾ 빈곤층이나 저소득층에게 경제적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이후의 '공동의 선'의 가치는 더욱 중요하다. 지난 3월 10일 구로구에 있는 한 보험사의 '콜센터' 직원 총 58명이 한꺼번에 '코로나19' 확진자로 진단되면서 '위험의 외주화'¹⁵⁾ 문제가 공론화되었다. 장두석은 '코로나19' 이후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되어 장기적인 경제침체를 겪게 될 것으로 전망하는데, 이 경우 가장 결정적인 피해층은 바로 청년들과 비정규직들이다.¹⁶⁾ 장하준은 역시 언

받고 있다. '빨리 빨리'라 불리는 한국의 독특한 사회문화가 반영된 소비구조인데, '코로나19'에 대응하며 그 효율성이 증명된 셈이다.

『매일경제』 2020년 4월 12일자, “쿠팡 `새벽배송` 전국서 통했다... 코로나 후 하루 300만 건 주문폭주,”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0/04/383856/> (2020.4.25.)

14) 3월 12일 새벽 2시경 <쿠팡>의 새벽배달 일을 하던 이른바 '쿠팡맨'인 40대 남성이 배송 도중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를 계기로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의 복지와 처우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대부분 비정규직인 이들의 노동환경은 '이커머스'의 산업의 성장과는 달리 매우 열악하여 향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공론화되고 있다. 『뉴스스』, 2020년 3월 15일자, “40대 쿠팡맨 새벽 배송 중 사망... 사망원인 두고 논란,”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315_0000956247&cID=10201&pID=10200 (2020.4.25.)

15) '위험의 외주화'는 2018년 12월 1일 태안의 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의 사망으로 사회적 의제가 되었다. 위험한 일은 법적 책임을 직접적으로 제기할 수 없는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대부분 맡기는 업계 관례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있었고, 2020년 1월 16일 그 결과로 '김용균법'으로 알려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지만 전문가들은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 비평한다. 그 이유는 단지 제도적 차원의 법적 문제를 넘어 한국경제의 노사문화를 개선하고 경제민주화의 가시화되어 본질적으로 경제적 공공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16) 장두석, “전통적인 한국형 경제 성장모델은 쇠퇴하나?” 임승규 외 7인, 『포스트 코로나,

론과의 인터뷰에서 ‘돌봄 경제(care economy)’로 제시했다. 서로 얽혀 살아야 한다고 있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안전한 연대와 협력을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질서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⁷⁾ 그래서 ‘코로나19’ 이후 정립해야 할 ‘뉴 노멀’은 한국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바꾸고 모든 이의 ‘공동의 선’을 담보하도록 공론화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시몬 마이어(Simon Mair)의 최근 주장에 주목한다. 우리가 유지해 온 잘못된 경제적 상상을 “시장은 우리의 삶의 질을 고양하기 때문에 보호돼야 한다는 것과 시장은 위기의 시기가 지나가면 곧 회복된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그는 ‘코로나19’에 인류가 선택할 새로운 경제질서의 가능성을 네 가지로 제시했다. 그중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질서는 ‘상호 부조(Mutual aid)’ 경제체제인데, 이는 “탈국가적이며 비중앙집권적인 대응으로서, (교환가치보다) 생명의 보호를 우선한다.”¹⁸⁾ 그는 ‘상호 부조’의 경제가 우리 인류가 채택할 수 있는 ‘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서울: 한빛비즈, 2020), 116-117.

17) 그는 ‘돌봄경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집에서 하는 가사노동부터 의료, 기본 서비스 등에 종사하는 분들이 없으면, 즉 이러한 돌봄경제가 없으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경제라는 것이 존재할 수도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다 서로 얽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돕고 안전을 지켜주지 않으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코로나19 사태를 기회로 이런 인식들이 점점 퍼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연대가 강화되는 쪽으로 사회가 재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장하준, “경제의 재편: 1929년 같은 대공황 온다.”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제작진, 『코로나 사회엔스: 문명의 대전환, 대한민국 대표 석학 6인이 신인류의 미래를 말한다』 (서울: 인플루엔셜, 2020), 62.

18) 시몬 마이어는 서레이 대학(University of Surrey)의 ‘지속가능한 번영의 이해를 위한 센터’의 연구원이다. 다른 세 가지 입장은 이렇다. 우선 ‘국가 자본주의(State Capitalism)’ 체제로서 “중앙집권적 반응으로 교환가치를 우선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로 ‘바바리즘(Barbarism)’ 경제체제는 “탈국가적인 비중앙집권적 대응으로 역시 교환가치를 우선”한다. 이는 경제적 약자들에게 극도의 고통을 안겨줄 것이다. 세 번째는 ‘국가 사회주의(State socialism)’ 경제인데 “중앙집권적 국가의 대응으로서 생명의 보호를 우선”한다. Simon Mair, *The Conversation* (2020.3.30). “What will the World like be after coronavirus? Four possible futures,” <https://theconversation.com/what-will-the-world-be-like-after-coronavirus-four-possible-futures-134085>

번째 미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경제의 미래에는 국가보다 작은 소그룹과 공동체가 서로 의존하는 방식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그 핵심적 가치는 ‘공동의 선’의 추구이다.

세 번째로 사회문화적 차원에서도 ‘뉴 노멀’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강하게 요청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비대면산업’의 활성화와 ‘온라인’ 교육의 전면화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할 때,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공동의 이익이 되도록 하는 사회적 합의가 없다면, 앞서 언급한 ‘공동의 선’의 경제와 정치는 형성될 수 없다. ‘코로나19’ 이후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지금과는 전혀 달라질 것을 예측하고, “공공성을 복원하기 위한 사회문화운동을 준비”하자고 주장하는 이종혁은 “수용자 중심 캠페인, 콘텐츠의 가치에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 중심의 커뮤니케이션”¹⁹⁾ 등의 실천을 전망한다. 비단 광고커뮤니케이션 계열의 영역에서만 아니고, 한국사회의 소통과 관계의 형식이 지향할 새로운 사회문화적 ‘가치’를 설정해야 ‘코로나19’ 이후의 삶에서는 모든 이의 번영을 실현하는 사회적 제도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나 정부, 정당과 같은 정치적 주체나 기업, 노동조합과 같은 경제적 주체가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사회적 합의를 주도하기가 쉽지 않다. 예컨대 현재 ‘2021년 최저임금’을 협의하는 경제주체 간의 토론이나 정당 간의 국회 개원을 놓고 벌이는 협상을 보면 ‘공동의 선’을 추구할 공론장 형성은 요원하다. 흥윤기는 이러한 ‘비합의적 사회자원’의 다원성의 직접적 기원이 ‘박정희 시대’의 개발독재에 있다고 본다. 경제개발의 결과가 서구처럼 시민사회의 주체적 경영의 물적 토대로 전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발전에 관심을 가진 모든 당사자들의 참여가 경제적 의사 결정

(2020. 4. 25.)

19) 김종혁, 시사저널(2020. 4. 14.), “공공성 복원을 위한 사회문화운동 일어날 것,”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98556> (2020. 4. 24.)

과정에서부터 구조적으로 보장되는 경제체제”²⁰⁾가 정상적으로 자리잡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사회의 현대성을 주도한 이들에게 한계로 내재되었는데, “한국에서는 그 어떤 현대기획도 다른 현대성 기획들을 포용하는 헤게모니를 행사할 정도로 완성을 거두지 못하고 외부 세력과 정황에 따라 국가 및 사회분열을 야기”²¹⁾하여 서구와 같은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공공성을 확장하는 의미에서 공론화될 ‘젠더 문제’나 ‘차별금지법’에 공적 토론, 또 ‘기성 세대’와 ‘청년 세대’ 혹은 ‘86 민주화 세대’와 ‘90년생 이후 공정의 세대’ 간 벌어지는 헤게모니 다툼은 ‘코로나19’ 이후 ‘모든 이에게 좋은 공동의 유익’을 추구하는 합의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한국 사회의 이러한 한계는 ‘코로나19’ 이후 요청되는 ‘공동의 선’의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에 정치적, 경제적 주체와는 다른 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종교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III. ‘ 19 : ‘ ’ (離隔)

다른 종교들도 관에서 요청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대부분의 개신교회도 일정 기간 ‘예배당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on-line)’ 예배나 ‘영상 예배’로 전환했다. 그러나 일부 정치적 편향을 가진 교회의 지도자들이 ‘예배당 예배’의 중단을 권고하는 관의 조치에 저항하며 대면적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 미국에서도 일부 복음주의 계열의

20) 홍윤기, “다극적 현대성 맥락 속의 미완의 파시즘과 미성숙 시민사회,” 사회와 철학 연구회, 『한국사회와 모더니티』 (서울: 이학사, 2001), 98.

21) 위의 책, 58.

교회들과 목회자가 이를 거부하며 행정명령에 협조하지 않는 일도 있었다.²²⁾ 그들은 정부의 행정명령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이러한 저항은 한국에서 더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결국, 일부 소규모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지역감염이 일어나면서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예장통합총회)>는 2020년 1월 30일 총회장 명의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교회의 대응 지침”이라는 문건을 소속 교회에 발송하여 당국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고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 소속 교회와 신자들이 공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을 요청했다.²³⁾ 대부분의 다른 교단들도 ‘예배당 예배’의 중단을 포함하여 비슷한 기조로 공식적인 협조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후 <예장통합총회>는 2020년 3월 24일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총회장 목회서신”을 발표하여 당시 국무총리의 긴급담화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고, 당국이 한국교회를 폄하하고 있으며, 이는 지금까지 교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한 것에 대한 무시라고 항의하였다.²⁴⁾

개신교회의 대표적인 기관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사태

22) 미국 플로리다의 한 대형교회 목사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Rodney Howard-Browne)은 3월 30일 예배를 두 차례 진행했다는 명목으로 체포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트럼프의 열성 지지자로 알려진 그는 ‘코로나19’가 중국에 의한 바이러스 공격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23) 현재(4.26)까지 통합총회는 총 7회에 걸쳐 대응지침을 발표했는데, 그 표현의 수위가 개교회의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는 쪽으로 변해갔다. 예컨대 2차, 3차의 경우 “~바랍니다.”의 표현이 7차에서는 “~ 좋을 듯합니다.”라든가 “~해도 좋습니다.”라는 표현함으로써 그 강요적 의미의 수위를 낮추려 한 것으로 보인다.

24)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20.3.24.),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총회장 목회서신,” http://new.pck.or.kr/bbs/board.php?bo_table=SM05_01_12&wr_id=1 (2020.4.25.) <예장통합총회>에 비해 더 보수적인 일부 교단들은 정부에 대한 노골적인 반대와 비난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이로 인하여 개신교회와 당국의 신경전과 사회적 대결 양상이 전개되었다. 당시 정부와 일부 자치단체는 집단감염의 위험을 고려하여 종교집회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정부의 권고를 따르지 않는 종교시설에 대해 구상권을 포함하여 강력한 제재방침의 실행과 함께 공무원들을 각 교회의 예배현장에 파송하여 정부의 지침에 따라 방역대책을 실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도 발표한 시점이었다.

초기 ‘목회서신(2.21)’을 통해 “교회, 정부, 이웃사회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을 강조했으며, “혐오와 차별이 아니라 상호 연대와 인류애의 정신”으로 함께 재난을 극복해야 한다는 당부와 함께 사회적 공동체의 일원인 교회는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로 전환하여 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권하였다.²⁵⁾ NCCK와 달리 보수적 연합기관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비판적인 입장을 개진하기도 했다. 연합기관과 개교회들이 정부 당국의 지침에 대응하는 태도는 개신교회가 가장 역동적이며 다층적이었는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한국 사회의 변동을 추동하는 사회적 제도로서 그 실체를 다시 확인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²⁶⁾

개신교회 내부의 공론장에서 논의된 사안은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코로나19’에 대한 신학적 혹은 신앙적 해석의 문제였고, 두 번째 사안은 ‘예배당 현장예배’의 중단결정에 대한 신학적 정당성에 대한 것이었다. 첫 번째 사안과 관련하여, 톰 라이트(N. T. Wright)는 <타임(TIME)>지에 게재된 글에서 기독교가 ‘코로나19’의 원인과 의미를 분명히 제시하려는 시도를 오히려 경계하고, 지금은 슬픔을 당한 이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명이라고 주장했다.²⁷⁾ 한편 그의 주장과 결을 달리하는 견해를 발표한 미국의 존 파이퍼(John Piper) 목사는, 그리스도인이 성경과

2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2020.3.13.),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목회서신,” <http://www.kncc.or.kr/newsView/knc202002210002> (2020.4.25.)

26) 6월 들어 다시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시설에 소규모 집회를 통한 전염확산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에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교회협의회>는 공동으로 성명을 내어, 정부의 방역정책과 가이드를 적극적으로 따를 것과 특히 여름 행사를 자제해 줄 것을 지역교회들에게 요청하였다.

한국기독교공보, (2020.7.2.), “한교총-NCCK, 코로나 극복에 교회 협력 요청,” <http://m.pckworld.com/article.php?aid=8568045533> (2020.7.2.)

27) N. T. Wright, *TIME* (2020.3.29.), “Christianity Offers No Answers About the Coronavirus. It’s not supposed to.” <https://time.com/5808495/coronavirus-christianity/> (2020.4.25.)

게시에 의존하여 오늘의 세계적 문제를 해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코로나19’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²⁸⁾ 두 사람의 의견이 한국교회에 회자되면서, 보수적 그리스도인들과 진보적 그리스도인들 간에 ‘코로나19’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두고 논쟁을 일으키기도 토론을 일으키기도 했다.

한국의 개신교회에서도 ‘코로나19’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규정하는 목회자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교회와 기독교의 대표적 단체에서는 특정 집단과 인종에 책임을 전가하며 혐오를 부추기는 것은 옳지 않고 ‘코로나19’에 대한 성급한 신학적 평가를 자제하고 사회적 책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학적 견해는 아니었지만, 월간지 <르 몽드 디플로마티크(*Le Monde diplomatique*)> 한국어판에서 성일권은 개신교회가 사회적 혐오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²⁹⁾ 개신교회가 ‘코로나19’ 이후의 ‘뉴 노멀’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가치를 생산하는 공론장에 한 구성원으로서 참여하려면, 그 신학적 해석 역시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두 번째 사안은, ‘예배당 현장예배’의 잠정적 중단을 두고 벌어진 논쟁이었다. 이 또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대처해야 할 문제였는데, 예배 행위가 종교단체 고유의 의식이라는 점에서 먼저 내부의 합의된 입장이 필요했다. ‘온-라인’ 예배에 대한 예배신학적 정당성, 그리고 ‘온-라인 공동체’로서의 교회론에 더하여 ‘온-라인 성찬식’에 대한 신학적 정당성 등

28) 『국민일보』 2020년 4월 14일자, “이 시대 최고의 신학자 2인 ‘코로나19’ 사태를 보는 관점’ 놓고 다른 해석,”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32945& code=23111111&cp=du> (2020.4.25.)

29)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신천지교회’의 교인들이 한국개신교로부터 ‘낙인찍기’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고발하고, 그 동안 개신교회가 보여준 반사회적 행태와 비교컨대 정당한 것이라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성일권, 르몽드디플로마티크(2020.3.31.), “코로나, 낙인찍기의 정치사회학,” <https://www.ilemonde.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58> (2020.4.25.)

지금까지 신학적 공론장에 등장하지 않았던 다양한 토론이 전개되었다.³⁰⁾ 정서적인 부담과 익숙하지 않은 어색함, 그리고 현장감 부족으로 인한 집중도 약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온-라인 성찬식’을 제외하면 신학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은 아니었다.³¹⁾

이 두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이 <지엠컴 리서치>에 의뢰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교회 영향도 조사 보고서」(2020.4.9.)를 발표했다. 교회 출석자 755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월 29일 ‘온-라인 예배’를 드린 이는 61.1%였다. ‘코로나19’ 이후 교회의 공적 역할에 대한 방향성 설정에 있어 두 가지 조사항목에 주목해야 하는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실생활에서 생활 중심의 신앙생활로의 전환”이 24.3%였고, “예배의 본질에 대한 정립”이 21.9%, “교회의 공적인 사회적 역할”이 21.4%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향후 ‘온-라인’ 예배에 참여 의향 여부는 “매우 있다” 13.9%와 “약간 있다.” 39.6%를 합하여 53.5%가 긍정적으로 답했다.³²⁾ 이상의 응답에서 이미 교회의 신자들 내면에서 발생하고 있는 새로

30) ‘온-라인 성찬식’에 대한 논쟁은 매우 고난도의 문제였다. <한국기독교공보>의 보도에 따르면, ‘온-라인 성찬식’에 대한 논의는 2020년 부활절에 ‘성찬예식’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를 두고 벌어졌다. 일부 교회에서는 성찬기를 각 가정으로 가져가 전달함으로써 성찬식을 거행했고, 목회자만 성찬을 행한 교회도 있었는데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2020년 부활절에는 성찬식을 거행하지 않았다. 기사에는 일부 신학자들의 찬반의 의견도 제시되었다. 한국기독교공보, 2020년 4월 13일자, “전례 없는 코로나 사태, 한국교회 성찬식 고민 깊었다.” <http://www.pckworld.com/article.php?aid=8479395226> (2020.4.25.)

31) 한국의 신학교 중 가장 먼저 <장로회신학대학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고통을 겪는 교회를 향한 위로와 권면의 서신,”(2020.2.27.)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사례의 예배유형을 제시하여 재학생들과 교회들에게 신학적 혼란이 없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주문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2020.2.2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고통을 겪는 교회를 향한 위로와 권면의 서신,” http://www.puts.ac.kr/suggestion/seosin/ceo_seosin_20200227.asp (2020.4.25.)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610> (2020.4.25.)

은 신앙생활의 경험이 유의미하게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19'에 대처하는 한국교회의 공적 태도에 주목했다는 점은 향후 한국교회가 사회의 '공동의 선'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이 두 사안이 내부의 신학적 논의로 다루어졌지만, 지난 '4.15 총선'을 두고 개신교계의 일부 지도자들이 정치적 입장을 개진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이후 '뉴 노멀'을 논의하는 사회적 논의에 한국교회가 참여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장애물이 신학적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경제학적 난제들도 많이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이었다. '4.15 총선'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정치세력화를 꾀했던 일부 근본주의적 광장정치 세력의 정치적 몰락, 그리고 정부의 협조 요청을 거부한 일부 교회들의 사회적 고립과 같은 기억을 객관화하여 향후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한국교회의 공적 역할 제고라는 숙제를 남겨주었다.³³⁾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고조된 공

32)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지앤컴리서치,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교회 영향도 조사 보고서”(2020.4.9.), 미간행조사보고서. 몇 가지 주요 항목과 응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온-라인’ 예배든 현장 예배든 참석하지 않은 이들에게 원인을 물었는데, “게을러서/귀찮아서”가 29.6%, “교회에 가지 않으니 예배드릴 마음이 안 생겨서”라고 응답한 이가 23.5%였다. 비현장 예배를 긍정적으로 경험한 이들의 의견은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려서 좋았다.”가 90.4%,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가 82.0%, “한국교회가 공적인 사회문제에 동참하게 되어 뿌듯했다.”가 83.2% 등이었다. 그러나 “현장예배보다 덜 만족스러웠다.”는 의견이 53.7%로 “더 좋았다.”는 9.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러면서도 87.8%가 “현장예배 중단은 잘 한 일이다.”로 응답했다. 그 이유로 “사회적 공익을 위해서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응답한 이들이 69.4%였다. 이 조사만으로 보면, 한국교회에 대한 신자들의 충성도는 그리 크게 변할 것으로 예측되지 않는다. 다만 새로운 경험한 예배생활과 신앙생활의 기억이 임시적인 것이어서 현장예배로 복귀한 후 소멸될 것인지, 아니면 잠재적으로 그 변화의 추이가 지속적으로 발현될 것인지는 시간을 두고 더 추적조사를 해야 해명될 것이다.

33)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사건은 그간 교회의 공적 역할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다수의 복음주의 원로급 지도자들이 결성한 <말씀과 순명>이라는 기도 모임의 등장이었다. 이들 중 몇 인사는 '4.15 총선'을 '체제선택'을 위한 선거로 규정하며 현 정부를 사회주의라 비판하는 이념 편향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교회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비판을 개신교회 내부의 많은 차세대 지도자들과 젊은 신앙인들에게 충격을 준

공성 요구를 교계는 어떻게 새로운 신앙표현으로 담아낼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개신교회는 한국 사회의 ‘공동의 선’을 위한 문화적 자원으로써 그 공적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IV. ‘ : ‘ 19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공동의 선’을 지향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며, 이는 ‘뉴 노멀’을 정립하는 공론장에서 주요한 토론 의제가 될 것이다. 한국교회가 이 작업에 동참하려면 내부의 신학적 토론을 넘어 한국 사회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공론장 이론’은 하버마스(Jurgen Habermas)의 논의로 시작되어 현대의 공공성 논의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국가와 귀족 계급을 견제하는 부르주아 계급의 여론형성과 함께 근대적 의미의 공론장이 등장했다. 임의영은 하버마스의 공론장이 “내부에 경계선을 그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외부에 대해 개방적이고 삼투 가능하며 가변적”이고 따라서 “정보와 관점들이 소통되는 네트워크”라고 말한다.³⁴⁾ 하버마스의 ‘형식적 화용론(formal pragmatics)’은 이러한 공론장의 특성을 극대화하는 소통행위이다.³⁵⁾

복음주의 진영 원로들의 사태 인식은 ‘코로나19’를 대하는 보수적 교회들의 극단적 태도와 겹쳐 시민사회와 교계의 정서적 거리감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 참고, 『뉴스엔조이』 2020년 2월 12일자, “홍정길 목사 “민주당 제시한 것, 전부 사회주의 정책... 이번 총선은 체제 선택하는 선거,”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6581> (2020.4.25.)

34) 임의영, 『공공성의 이론적 기초』 (서울: 박영사, 2019), 195.

35) 임의영은 하버마스의 방법론을 이렇게 설명한다: “방법이 ‘형식적’인 것은 내용보다는 소통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보편적 조건을 구성”하는 것으로 타당성을 “상호주관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이며, “이해가능성, 명제의 진리성, 규범의 정당성, 표현의 진실성에 호소하는 방식”이다. 위의 글, 200.

그러나 여러 학자가 비판하듯이 여기에는 계급적 차이와 다원성에 대한 정치적 고려가 부족하다. 예컨대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생존과 실존의 영역으로서 공론장을 상정하고 인간의 말과 행위가 보장되는 평등한 조건, 즉 ‘자유’로서의 정치를 더 부각한다. ‘인간실존의 의존성’은 ‘다원성’으로 확장되는데, “다원성은 모든 정치적 삶의 ‘필요조건’일 뿐만 아니라 ‘가능조건’이라는 의미에서 절대적 조건”이다.³⁶⁾ 아렌트에게 공론장과 소통의 원리는 일종의 철학적 가치에 부합한다. 다원성에 대한 강조가 바로 그녀의 철학이 개인의 자율적 공간인 사적 영역을 폐기하고 오직 일원적 원리에 의해 개인을 지배하려는 전체주의에 대한 지적 비판이었음을 말해 준다.³⁷⁾ 그것은 곧 삶의 가치로 자리매김한다. 인간의 삶 자체를 긍정하고 모든 인간의 번영을 모색하는 ‘생존의 조건’으로서 정치, 그 표현으로서의 자유는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하버마스의 근대적 공론장 이론을 변화시키는 두 가지 논의에 주목한다. 첫째는, 최근 하버마스가 자신의 ‘의사소통론’과 ‘공론장 이론’에서 배제되어 온 ‘종교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렌트의 주장을 지구적으로 확장하여 ‘다원성’을 지구적 공론장에 적용하려는 논의이다. 그리하여 ‘코로나19’ 이후 한국에서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공적 역할, 즉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새로운 질서형성에 참여하는 신학적 근거를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재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하버마스는 최근 다양한 저술을 통해, 근대의 공론장 기획이 실패하고 있는 가장 결정적 이유를 근대주의의 한 기원인 ‘종교’의 가치와 역할을 무시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오늘날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근대국가는 그 기원적 자원 중 하나인 종교적 자원들을 존중해

36) Hannah Arendt, 이진우, 태정호 역, 『인간의 조건』(파주: 1996), 56.

37) 조승래, 『공공성 담론의 지적 계보: 자유주의를 넘어서』(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4), 139.

야 하고, 종교도 국가의 법과 합리성을 존중하면서 공적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³⁸⁾ 하버마스의 이런 제안에 따라, 신학자들도 공론장의 ‘구성적 대화(constructive dialogue)’를 수용하고, 여러 공적 영역에서 진지한 만남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종교에 대한 편견을 가진 이들을 비판하기도 했고 민주주의 정치에 있어서 종교계를 포함하여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는 철학적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었다.³⁹⁾ 예컨대 헨트 브리스(Hent de Vries)는 하버마스의 제안을 수용하여, ‘후기세속적(postsecular)’사회에서 종교가 지구적 차원의 연대와 협력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후기세속사회인 오늘날, 이전에 없던 새로운 네트워크가 발전하여, 더 많은 소통, 권위, 정책들이 공론장에서 경쟁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체계로 대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래서 지구적 연대가 필요한 시대에 사회적 작용과 소통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일원인 종교가 근대주의의 기원적 자원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⁴⁰⁾

두 번째로 근대적 공론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구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공동의 선’의 가치와 연대하여 한국 사회의 ‘뉴 노멀’이 지구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일에 교회가 기여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공동의 선(the common good)’을 실현할 새로운 사회문화적 정립을 수행할 적절한 지구적 공론장과 수행 주체를 찾아보기 어렵다. 역사적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에 직면하여 종교는 사회적 약자나 피해자들에게 사회적 연대와 부조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의 선’에 기여해 왔다.⁴¹⁾

38) Jurgen Habermas, *Between Naturalism and Religion* (Cambridge: Polity, 2008), 121.

39) Craig Calhoun, Eduardo Mendieta and Jonathan VanAntwerpen eds., *Habermas and Religion* (Cambridge: Polity, 2013), 8-9.

40) Hent de Vries, "Global Religion and the Postsecular Challenge," in *Habermas and Religion*, Craig Calhoun, Eduardo Mendieta and Jonathan VanAntwerpen eds., 228-229.

41) 미국 ‘갤럽(Gallup)’의 최근 조사에서는, ‘코로나19’가 영성과 신앙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긍정적’이라는 반응이 19%로 ‘부정적’이라는 응답보다 16%나 높은 수치였는데,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뉴 노멀’은 지구적 차원의 ‘공동의 선’을 추구해야 한다. 이는 지역적 논의를 넘어 전 지구적 차원의 합의가 필요하다. 더구나 ‘코로나19’의 확산은 모든 인류가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론적 도전도 함께 제기했다는 점에서, 지구적 차원을 고려하는 ‘공동의 선’의 추구는 매우 중대한 동기가 될 전망이다. ‘공동의 선’의 지구적 논의에 있어, 그것을 ‘제국의 논리’와 날카롭게 대비시키는 조에그 리거(Joerg Rieger)는 ‘공동의 선’을 왜곡시키는 지구적 힘이 ‘현 상태(status quo)’를 유지하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권력이라고 비판한다.⁴²⁾ 리거는 그것을 현 신자유주의 체제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아렌트가 전체주의를 비판하며 “다른 시민과 함께 공적 영역에서 공적으로 행위 한다는 데서 오는 ‘공적 행복’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공적 영역이 회복될 때 비로써 진정한 사적 영역도 확보될 수 있다”⁴³⁾고 주장한 것과 같은 취지이

이에 대해 프랑크 뉴포트는 “미국의 종교인들이 지금까지 유지해 온 신앙적 실천을 갑작스러운 도전에 직면하여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가 앞으로 미국사회의 웰빙(well-being)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큰 합의를 갖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Frank Newport, *Gallup* (2020.4.6.), “Religion and the Covid-19 Virus in the US,” <https://news.gallup.com/opinion/polling-matters/307619/religion-covid-virus.aspx> (2020.4.24.) 한편 최근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조사에 나타난 미국인들의 반응을 보면, “55%의 미국인들이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2019년 한두 번 교회에 출석한 경험이 있는 이들 중 “59%가 이전보다 덜 예배에 참석하게 된다.”고 응답했고, “57%가 온라인이나 TV를 통해 예배에 참석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뉴포트 박사의 조사와 함께 미국 기독교인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종교적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비록 그것이 직접적인 교인 수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지라도 말이다.

참고. Pew Research Center, (2020.3.30.), “Most Americans Say Coronavirus Outbreak Has Impacted Their Lives,” <https://www.pewsocialtrends.org/2020/03/30/most-americans-say-coronavirus-outbreak-has-impacted-their-lives/> (2020.4.24.)

42) Joerg Rieger, “Common Good and Religion in the Context of Capitalism,” in *Common Goods: Economy, Ecology, and Political Theology*, Melanie Johnson-DeBaufre, Catherine Keller, and Elias Ortega-Aponte eds., (Bronx: Fordham University Press, 2015), 157.

다. 이는 근대적 공론장이 ‘신자유주의’ 체제와 같은 획일적 경제질서를 극복하고, ‘공동의 선’의 지구적 다원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공공신학자들이 대부분 “ ‘공동의 선’을 인간의 도덕적 한계를 더 확장하고 모든 이의 삶을 번영으로 이끄는 정책과 사회적 관계에 집중하도록 우리에게 도전하는 상상력”⁴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두 논의는 같은 궤도에 놓여 있다.

지구적 차원의 ‘공동의 선’에 대한 탁월한 해석을 제공하는 패트릭 리오단(Patrick Riordan)는 허렐(Andrew Hurrell)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국제문제를 다루는 ‘공동의 선’을 해명하고자 한다. 허렐은 국제체제가 탈중앙적이며, 권력의 분배에 의해서만 구조화된다는 의견을 반대하고, 공동의 이해, 규칙, 규정, 상호적 기대 등의 공유된 차원에 더 주목한다.⁴⁵⁾ 리오단은 이런 주장을 수용하고, 협력체제를 토대로 하는 ‘공동의 선’을 지구적 윤리로 규범화하고자 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낸시 프레이저(Nancy Fraser)는 하버마스의 공론장이 영토중심적 근대국가 안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비판하고, 지구적 차원의 정의를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⁴⁶⁾ 아렌트의 다원성을 수용하는 프레이저는 지금 문제가 되는 지구적 차원의 부정의는 근대국가의 ‘정상적 상태’에 내재된 한계가 발현된 것이라고 본다. 이 관점은 ‘코로나19’의 확산을 ‘신자유주

43) 조승래, 『공공성 담론의 지적 계보: 자유주의를 넘어서』, 139.

44) Jacquineau Azetsop, SJ, “The Return to the Common as a Challenge to the ‘Eclipse of the Public’: Five Usages of the Common Good,” in *Public Theology and the Global Common Good*, Kevin Ahern, Meghan J. Clark, Kristin E. Heyer and Laurie Johnston eds., (New York: Orbis, 2016), 119.

45) Patrick Riordan, *Global Ethics and Global Common Goods* (London: Bloomsbury, 2015), 121. 허렐(Andrew Hurrell)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국제문제연구센터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의 소장이다.

46) 프레이저는 ‘베스트팔렌조약(1648)’에 의해 영토국가를 주권국가로 인정한 현 체제의 한계를 비판하고 있다. 국가에 속하지 않은 개인이나 주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지구화 시대에 이들의 주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의 체제'에 내재된 문제의 발현으로 보는 입장과 유사하다. 그래서 프레이저는 지구적 차원의 새로운 '비정상성'을 제시하고 "비정상성이 가진 긍정적 측면은 논쟁의 영역이 확장되고, 이에 따라 기존의 문법이 간과하고 있던 부정의들을 문제 삼을 기회가 확대된다는 것"⁴⁷⁾이라 주장하면서, "실제로 기존 문법이 은폐해 온 진정한 형태의 부정의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고려하면서 그 관점들을 검토해야 한다."⁴⁸⁾고 주장한다. 프레이저는 근대적 영토국가를 넘어 다원성을 담보하는 새로운 정의론을 주장하고자 하는데, 이는 '공동의 선'의 지구적 차원의 실천에 대한 동기를 공유하는 것이다.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인류의 번영(flourishing)에 종교가 기여해야 한다는 미로슬라프 볼프(Miroslav Volf)의 주장은 본 연구의 주장에 의미 있는 신학적 근거를 제공한다. '번영'은 '공동의 선(the Common Good)'에 있어 핵심적 개념이다. 볼프는 '지구화'와 '종교'가 공동의 숙명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서, '종교'의 기원적 동기와 이상으로서 '인간의 번영'이 실현되는 지구화를 윤리적으로 요청한다. 오늘날 종교가 분쟁과 다툼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현실을 그는 인정하는데, 그러나 종교의 본래적 이상인 '모든 인간의 번영'이라는 가치는 지구화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종교는 인간의 번영, 자기, 사회적 관계, 선에 대한 비전을 구현하고, 사람들의 감정과 의지를 동원하는 방법과 그 비전에 따라 살 수 있게 사람들의 성품을 다스리는 방법을 제시"⁴⁹⁾하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공공성을 지닌 세계종교가 종교적 배타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분쟁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는 없지만, 역사적

47) Nancy Fraser, *Scales of Justice*, 김원식 역, 『지구화 시대의 정의』(서울: 그린비, 2010), 103.

48) 위의 글, 107.

49) Miroslav Volf, 양혜원 역, 『인간의 번영』(서울: IVP, 2017), 234-35.

으로 볼 때 배타적인 종교가 ‘정치적 다원주의’에 헌신하며 공존한 사례도 많이 있다고 주장한다.⁵⁰⁾ 즉 정치적 공론장에서 ‘공동의 선’에 헌신할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이런 관점은 공공신학의 자리를 지구화 맥락에서 파악하려는 패쓰(Scott R. Paeth)와 대화할 수 있다. 그는 지구화를 경제적으로만 파악해서는 안 되고, 종교가 가진 상징적 힘과 전통이 지구화 국면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면서 ‘공동의 선’과 ‘인간변영의 본성’을 연관하여 논의한다. 지구화는 모든 인간의 집단적 행복을 위해, ‘공동의 선’을 위해 지구적 정책을 수행할 조건을 마련하였고, 이는 국가주의와 인종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상상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은 기독교 공동체가 제공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함의를 오히려 극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패쓰는 이것이 공공신학의 과제라고 보고 있다.⁵¹⁾

지금까지 두 가지 측면에서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정립해야 할 ‘공동의 선’의 ‘뉴 노멀’을 형성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지구적 차원의 종교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한국 사회의 ‘뉴 노멀’의 형성은 지구적 차원과 연동되어 있다. 그것은 지구화 시대에 종교의 공적 역할이 요구되는 맥락과 지구적 차원에서 모든 이의 ‘변영’을 위한 다원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50) 위의 글, 194. 볼프는 배타적 공격성을 보이는 종교가 분열과 다툼의 원인이라는 지적을 긍정하면서도, 오히려 종교적 배타주의가 신자들을 정치적 공론장에 동원해 넣으로써 참여적 민주주의로 이끌어 갈 가능성에 주목한다. 예컨대 미국 복음주의 운동이 보수적인 문화적 관점을 가지고 문화전쟁을 벌여왔지만, 동시에 교회가 정치 관심을 갖도록 하면서 그 입장의 다양성을 확대해왔다는 지적이다. 낙태나 동성애 문제에는 보수적으로 사회적인 분열을 일으켰지만, 도덕적 문제와 정직을 정치인들의 중요한 미덕으로 만드는 일에 기여했다는 점 등이다. 그래서 배타적 종교성이 반드시 배타적 정치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공동의 선’과 모든 이의 ‘변영’에 헌신하도록 유도할 책임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볼프의 탁월한 통찰이다.

51) Scott R. Paeth, “Public Theology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in Sebastian Kim & Katie Day eds., *A Companion to Public Theology* (Leiden: Brill, 2017), 200-203.

었다.

V.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의 시민적 공론장은 자유로운 정치적 참여가 가능한 ‘공존의 논리’가 요청된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코로나19’ 이후 ‘뉴 노멀’의 핵심은 ‘공동의 선’의 실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지 임시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넘어서서, 그것은 모두의 번영과 안전이 보장하는 질서를 수립하는 것이다. 시민사회의 공론장에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하려면,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돌봄, 생명, 민주주의의 윤리적 가치를 지지하는 사회형식을 만들어 내는 것”⁵²⁾이다. 오늘, 후기 세속사회에서 이 일을 수행할 주체 중 하나는 명확히 종교이며, 한국교회는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사회문화적 자원을 공급해야 할 공적 책임이 있다. 그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한 연구는 다음 과제로 남겨 놓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아쉬움이다.

후기세속사회는 종교가 ‘공동의 선’에 헌신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또한 지구화는 종교가 ‘인간의 번영’에 헌신할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다원적 공론장을 지구적으로 구축하고, 지역적 연대를 확보하는 것이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에서 수립해야 할 ‘뉴 노멀’ 형성의 과정이 될 것이다.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한국교회는 내부적 논의에 집중하며 공론장의 요구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말았다. 신학적 논의도 중요하지 만, 그 논의가 한국 사회의 공공성 의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각성하고 모든 이의 이익을 위한 ‘뉴 노멀’의 논의에 참여할 공공신학적 방법을 모색

52) Simon Mair, “What will the World like be after coronavirus? Four possible futures,” <https://theconversation.com/what-will-the-world-be-like-after-coronavirus-four-possible-futures-134085> (2020.4.25.)

해야 한다. 이것은 지구화 국면의 공공신학의 사회문화적 역할을 강조한 패쓰의 주장대로, 종교가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사회문화적 자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한국교회가 사회문화적 가치의 생산과 공급이라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종교적 배타주의로 인해 시민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될 것이고 ‘코로나19’ 이후 ‘뉴 노멀’을 형성하는 공론장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되면 ‘코로나19’로 겪는 교세감소 및 신학적 혼란보다 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국교회가 시대적 요청에 책임적으로 응답하여 한국 사회의 ‘공동의 선’에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참고문헌

- 『 : , 2019.
- “ ?” 7 . 『 : : , 2020, 63-119.
- “ : 1929 .” CBS < > . 『 : , 6 . 『 : , 2020, 42-67.
- “ 19 .” . 『 19- . 『 : , 2020, 162-166.
- 『 : . 『 : , 2014.
- / . “ 19 .” , 2020.
- “ .” . 『 : , 2001.
- Arendt, Hannah. *The Human Condition*. , . 『 : 1996.
- Fraser, Nancy. *Scales of Justice*. . 『 : , 2010.
- Volf, Miroslav. *Flourishing*. . 『 : IVP, 2017.
- Azetsop SJ, Jacquineau. “The Return to the Common as a Challenge to the ‘Eclipse of the Public’: Five Usages of the Common Good,” in *Public Theology and the Global Common Good*. Kevin Ahern, Meghan J. Clark, Kristin E. Heyer and Laurie Johnston eds. New York: Orbis, 2016, 109-119.
- Calhoun, Craig, Eduardo Mendieta and Jonathan VanAntwerpen eds. *Habermas and Religion*. Cambridge: Polity, 2013.

- Habermas, Jürgen, *Between Naturalism and Religion*. Cambridge: Polity, 2008.
- Rieger, Joerg. “Common Good and Religion in the Context of Capitalism,” in *Common Goods: Economy, Ecology, and Political Theology*. Melanie Johnson-DeBaufre, Catherine Keller, and Elias Ortega-Aponte eds. Bronx: Fordham University Press, 2015, 149-168.
- Riodan, Patrick. *Global Ethics and Global Common Goods*. London: Bloomsbury, 2015.
- Paeth, Scott R. “Public Theology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in *A Companion to Public Theology*. Sebastian Kim & Katie Day eds. Leiden: Brill, 2017, 185-210.
- Vries, Hent de. “Global Religion and the Postsecular Challenge,” in *Habermas and Religion*. Craig Calhoun, Eduardo Mendietta and Jonathan VanAntwerpen. eds. Cambridge: Polity, 2013, 203-229.

『 』. 2020.4.14. “ ” 2 ‘ 19 ’ ,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32945 &code=23111111&cp=du> (2020.4.25.)

『 』. 2020.4.14. “ ”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98556>
 (2020.4.24.)

『 』. 2020.3.15. “40 …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315_0000956247&cID=10201&pID=10200 (2020.4.25.)

『 』. 2020.2.12. “ ” …
 .”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6581> (2020.4.25.)

『 』. 2020.3.24. “ 19 ”
http://new.pck.or.kr/bbs/board.php?bo_table=SM05_01_12&wr_id=1

『 』. 2020.4.8. “ ”
<http://www.realmeter.net/%EA%B8%B4%EA%B8%89%EC%9E%AC%EB%82%9C%EA7%80%EC%9B%90%EA%B8%88-%EC%A0%84-%EA%B5%AD%EB%AF%BC-%ED%9>

9%95%EB%8C%80-%EC%B0%AC%EC%84%B1-58-2-vs-%EB%B0%98%EB%8C%80-36-6/

- 『 』. 2020.4.12. “ ‘ , … 300 .”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0/04/383856/>
- 『 』. 2020.4.21. “ , …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42013205227573&fbclid=IwAR3Db_thMOgnwzzVJ1xV6u6nYmSSKgv9uLL8cW6p0iyvmVInLnImXFp m3zg
- . 2020.3.31. “ , .” <https://www.ilemonde.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58>
- . 2020.2.27. “ -19(COVID-19) .” http://www.puts.ac.kr/suggestion/seosin/ceo_seosin_20200227.asp
- 『 』. 2020. 4.13. “ … .” <http://www.hani.co.kr/arti/science/future/936780.html>
- . 2020.3.13. “ 19 .” <http://www.kncc.or.kr/newsView/knc202002210002>
- . 2020.4.13. “ , .” <http://www.pckworld.com/article.php?aid=8479395226>
- . 2020.7.2. “ -NCCK, .” <http://m.pckworld.com/article.php?aid=8568045533>
- 『 』. 2020.6.27. “ ‘ , 80%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6231707000009?did=NA>

BBC. 2020.4.16. “South Korea election: Ruling party wins amid coronavirus outbreak.” <https://www.bbc.com/news/world-asia-52304781>

Mair, Simon. *The Conversation*. 2020.3.30. “What will the World like be after coronavirus? Four possible futures.” <https://theconversation.com/what-will-the-world-be-like-after-coronavirus-four-possible-futures-134085>

Gates, Bill. TED . 2015.4.3. “The next outbreak? We’re not ready.” https://www.youtube.com/watch?v=6Af6b_wyiwI

- Harari, Yuval. *Financial Times*. 2020.3.20. "the World after Corona virus."
<https://www.ft.com/content/19d90308-6858-11ea-a3c9-1fe6fedcca75>
- Hollingsworth, Julia and Yoonjung Seo. CNN. 2020.4.15. "South Korea is holding an election during the coronavirus crisis. Other countries are postponing theirs. Either way, democracy may suffer." <https://edition.cnn.com/2020/04/13/asia/elections-coronavirus-pandemic-intl-hnk/index.html>
- Kissinger, Henry A. *WSJ*. 2020.4.3. "Corona Pandemic will Forever alter World Order." <https://www.wsj.com/articles/the-coronavirus-pandemic-will-forever-alter-the-world-order-11585953005>
- Newport, Frank. *Gallup*. 2020.4.6. "Religion and the Covid-19 Virus in the US." <https://news.gallup.com/opinion/polling-matters/307619/religion-covid-virus.aspx>
- Pew Research Center. 2020.3.30. "Most Americans Say Coronavirus Outbreak Has Impacted Their Lives." <https://www.pewsocialtrends.org/2020/03/30/most-americans-say-coronavirus-outbreak-has-impacted-their-lives/>
- World Economic Forum. 2020.4.17. "Universal basic income is the answer to the inequalities exposed by COVID-19." <https://www.weforum.org/agenda/2020/04/covid-19-universal-basic-income-social-inequality/>
- Wright, N. T. *TIME*. 2020.3.29. "Christianity Offers No Answers About the Coronavirus. It's not supposed to." <https://time.com/5808495/coronavirus-christianity/>

논문투고일: 2020년 07월 10일

심사개시일: 2020년 07월 20일

게재확정일: 2020년 08월 04일

• 국문 초록 •

‘ 19’ ‘ (the new normal)’ .
 , ,
 . ,
 ‘ ’ ‘ (the common good)’
 .
 . ‘ 19’
 , ‘ ’
 , . ‘
 , ,
 . ‘ , ‘ ,
 , ‘ , ‘
 19’ ‘ ,
 , ‘ , . ‘

주제어: 19, , (new normal), ,